교육현장 노동인권 감수성 'UP'

당초 전주·정읍 현장공연서 코로나19 확산 따라

도교육청, '연극 전태일' 31일까지 온라인 공연

전태일 열사의 삶, 음악 서사극으로 재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연극 전태일' 온라인 공연을 오는 31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교육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초 전주와 정읍에서 현장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 소속 학교, 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학교별·학급별·개인별 등 학교와 기관의 여건에 맞게 관람할 수 있다.

연극 관람 이후 댓글이나 메시지로 후기를 작성하면 선정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노동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태일 열사의 삶을 연극으로 만나봄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노동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극 전태일'은 전태일 열사의 삶을 음악 서사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한 청년 노동자가 암울하고, 열악한 노동 현실에 맞서 분신으로 항거해 변화를 꾀한 이야기를 통해 결국 사랑의 실천이 인간의 의무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사진=KBS 1TV 국악대상 제공〉

이날치, KBS 국악대상 단체상

10개 부문 수상자 공개

방송은 26일 KBS 1TV 통해

올 한 해 공연 및 방송 등의 활동을 통해 국악발전에 기여한 국악인을 시상하는 'KBS국악대상'의 10개 부문 수상자가 7일 공개됐다.

'가악상'은 안정아(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민요상'은 성슬기(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판소리상'은 이봉근(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이 차지했다.

'연주 관악상'은 김상연(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연주 현악상'은 박세연(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 '작곡상'은 김창환(작곡가/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 조감독), '무용상'은 장인숙(희원 무용단 대표), '출판 및 미디어상'은 레이블소설이 가져갔다.

'단체상'은 '1일 1범'이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밴드 '이날치'에게 돌아갔다. 4명의 소리꾼(권송희, 신유진, 안이호, 이나래)과 2명의 베이시스트(장영규, 정중엽)와 드러머(이철희)가 함께 활동 중인 이날치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음악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치'를 비롯해 9개 부문 수상자(특별공로상 제외) 가운데 영예의 대상은 10일 KBS별관 공개홀에서 비공개로 치르는 녹화를 통해 발표되며, 26일 낮 12시 10분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뉴시스

'드론, 진안고원의 아름다움 담다'

군, 관광 홍보 활용 영상 공모전

내년 10월 말까지 신청접수

진안군은 아름다운 진안고원의 영상 콘텐츠를 확보해 진안관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드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콘텐츠 업체인 ㈜살구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드론, 진안고원의 아름다움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안만이 간직한 천혜의 관광명소와 자연/역사, 축제, 야경, 숨은 관광지 등에 색다른 아름다움을 발굴해 지역홍보 활동에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 접수는 내년 10월 말까지로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출품수는 개인 또는 팀당 3편 이내로 제한된다. 분량은 5~10분 이내로 드론 촬영분이 전체 분량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중복 수상은 안 된다.

공모전 결과는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발해 내년 11월 21일(예정)에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들에게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편에는 300만원, 은상 2편에는 각 150만원, 동상 3편에 각 100만원, 입선 10편에 각 10만원 등 총 16편에 상금 1,000만원과 함께 금·은·동상은 진안군수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진안군 공식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진안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진안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전국 드론 촬영 애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의 소통/참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9일

문화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0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Ⅰ'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담론과 담화Ⅰ'는 도내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집중 토론을 통해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문화정책 포럼(공개토론)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9일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락 2실에서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의 주제로 재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면서 예술인의 생존 위기에 직면하는 재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진단과 새로운 지역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비대면으로 생중계하는 포럼 내용은 녹화본을 통해 재단 홈페이지(www.jbct.or.rk)와 유튜브에서 송출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피해 실태 파악과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인 대응책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정책기획팀(063-230-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한콘진, 5G 실감기술 결합 '광화시대' 프로젝트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콘진원)이 문화·관광 콘텐츠와 5G 실감기술을 결합한 총 8종의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개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17일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과 올해 9월24일 발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의 내용을 잇는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전략 중 '광화문 프로젝트'(현(現) 광화시대)를 조명했다.

이번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홀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가 5G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도록 광화문 일대에 거대한 '국민 놀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게 콘진원의 설명이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광화시대'는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를 여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며, 콘진원은 앞으로도 실감 기술 등 첨단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금 대한민국이 활기차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11일 '전주 교육가족 한마음 음악회' 온라인 공연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20 전주 교육가족 한마음 음악회'가 11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7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마다 열리는 4개시 어머니합창단 연말 합동 공연이 어렵게 되자 지난 9월부터 '2020 전주 교육가족 한마음 음악회'로 변경해 준비해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대비 11월 초부터 사전 공연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공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음악회는 '온고을어머니 합창단'을 중심으로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온빛 오케스트라', 교장 선생님들이 참여한 '소리꽃심 중창단'과 독창은 물론 악기 연주(기타, 색소폰, 가야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재능을 발산했다.

특히, 온고을어머니 합창단의 이정숙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서로 위로하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멋진 공연을 준비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내년에는 다 같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희망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전주교육 가족 간 연대와 결속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의 두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